

# 만남

08

2020

통권 559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유아세례식 열려

7월 5일 주일 찬양예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유아세례식이 치러졌다. 한 줄에 두 가족이 앉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만2세 미만 유아 11명이 김운성 위임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전한 권혁일 목사는 ‘아이의 꿈, 어른의 꿈(이사야 11:1~9)’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른의 꿈을 물려주자”고 축원했다. 부모들은 “귀한 선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세례 받은 유아는 이하울(18교구), 김준우(14교구), 송제인(18교구), 황시온(9교구), 김온유(15교구), 오예나(6교구), 박채언(8교구), 박준형(15교구), 김하은(17교구), 정라현(10교구), 이주아(6교구)이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이준이집사

### 교회표어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13~14)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 실현

### 5대 본질





#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기쁨이 씹입니다 김운성

**특집 I** 04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 박규성  
06 119일 동안의 간절함과 감사 정광훈  
08 새벽기도와 묵상으로 더욱 감사했던 시간들 민병준  
10 내 마음에 혹 들어온 말씀들 최은오

**특집 II** 13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김종태  
16 부부 예배로 여는 하루 윤상우

**영락칼럼** 18 코로나19 시대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릴 때 배정훈  
20 눈을 통해 채워야 할 것 탁현수  
22 해방 75주년에 드리는 기도 김경민

**땅끝까지 이르러** 24 복음통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 권기용  
26 모이지 못해 더욱 커진 사랑의 사역 정연수  
27 북한 가정에 보낼 성경 500만 권 준비했습니다 안태운

**아픔의 우물가** 28 자유를 찾아 중국 거쳐 한국으로 김연주  
30 분단된 한반도 회복을 기도합니다 김윤아

**다음 세대** 32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 전의혁  
34 '언제나 그래왔던 것'의 감사함 조수아  
36 내맘대로 정한 길을 막으신 하나님 이지연  
38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신동연·강경미

**영락의 올타리** 41 코로나19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 박용천  
44 보시기에 좋았더라 김명희  
46 사랑을 전하는 병동 찬양 53년 조현범  
47 영락교회 이광춘

**문화광장** 48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박규성  
49 절실한 만남 위영혜

**교회소식** 50 한친구 운동 외  
58 8월 묵회력  
59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60 편집장 레터

## 표지설명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만남》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 피서 중에도 《만남》은 살아있습니다.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 기쁨이 쉽습니다

김 운 성 위임목사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혼란합니다. 익숙하고 당연하던 많은 것이 차단되거나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이 문을 닫거나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 머물던 이들의 평소 바람대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이들도 업무가 줄어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를 가진다고 말씀하더군요.

그러나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음에도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상의 질서가 깨지고, 활동이 반강제적으로 멈춰지고, 소득이 줄고, 마스크가 주는 압박이 증가하고,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가져온

우울감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 중에는 예배당 예배와 만남이 위축되어 영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도 많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시간 여유와 육체적 쉼을 가져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참된 쉼에 이르지 못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된 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경우에 쉼은 멈춤을 의미합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걸음을 멈출 때, 끓어오르는 욕망을 멈출 때 쉼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 안에는 멈춰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과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열심히 달려야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쉼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식일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백성들을 멈추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멈춰 세워야 할 부분을 찾아내어 브레이크를 깊이 밟아야 하겠습니다. 차체에 멈춰 서서 주위에 관심을 두고 둘러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만으로는 참된 쉬이 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쉬을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기쁨이 곧 쉬입니다.

19세기 말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메리 슬레서라는 여성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나는 잠자리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 몇 개를 엮기설기 없어서 침대로 삼고, 더러운 옥수수 껍질로 이불을 하고, 쥐들과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방에 세 명의 여자와 생후 사흘 된 아기가 함께 눕고, 밖에서는 양과 염소, 그리고 소 떼들이 악취를 풍기는 곳에 누울 때, 이전 같으면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곳에서도 잘 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잠 속에서 주님을 보았으며, 야곱이 베엘에서 경험한 하나님 만남을 내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나는 그곳에서 너무도 깊고 고요한, 그리고 충만한 안식 속에서 단잠을 잤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 주는 기쁨이 커서 육체적 불편함에도 쉬를 누렸습니다.

니다. 기쁘다면 좀 더 무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뿌듯한 피곤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다면 아무리 열매가 많아 보여도 멈춰야 합니다. 기쁨이야말로 그 쉬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중세의 수도자 중에는 쉬는 것, 편한 것을 죄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는데, 하루 한 끼만 먹고, 썩은 달걀을 먹고, 앉아서 자고, 수도원에 온 후에는 평생 나가지 않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 참 경건에 이르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율법에 매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기쁨 여부가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으나, 거기 쉬이 있었습니다. 기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단 금침에 누워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쉬이 아닙니다. 내면의 기쁨을 도외시한 채 외견적, 육체적 쉬만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산해진미를 앞에 두고도 괴로운 사람이 있고, 굶은 빵 한 덩이로도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샘입니다. 참 쉬를 원한다면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코로나 환경에서 맞이하는 울여름에 영락의 성도들에게 참 쉬이 있길 기도합니다. **만남**

늘 우리 자신에게 ‘지금 기쁘는가?’라고 물어야 합

##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

2020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작했던 ‘119 대작전’이 드디어 작전 종료되었습니다. 119일간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나를 통해 이웃(가정, 직장, 이웃, 교회, 나라)을 살리고 섬기기 위한 다양한 행동목표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귀한 영적 작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9대작전을 시작하자마자 터져버린 코로나19 사태로 119대작전이 이때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어쩌면 이렇게 절묘한 시기에 119대작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119대작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믿음이 연약했던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119대작전 워크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하게 되었다는, 한 줄 간증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 이때를 위해 영락교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19대작전 기간 동안 작전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19대작전 실천 목표를 회피하기 위해 이 핑계 저 핑계로 실천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는 툭하면 혈기가 올라와서 육적인 싸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2)

때로는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 엉뚱하게도 가족일 때도 있고,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들과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섬기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위 ‘신앙’의 핑계로 육적 전쟁을 치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9



「거인」 N.C. 와이어스(1923)

대작전을 해야 한다며 가족에게 강제로 가정예배를 강요하다가 오히려 가족들과 마찰이 생겨버리는 경우입니다. 명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119대작전을 시작했지만, 접근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 엉뚱하게도 뜯구름을 잡는 영적 전쟁으로 변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화가 ‘뉴웰 컨버스 와이어스(Newell Convers Wyeth, 1882-1945)’가 1923년에 그린 ‘거인(The Giant)’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모래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커다랗게 피어오르는 뭉게구름을 보고 그게 마치 커다란 거인처럼 보여 놀라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동심을 상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저는 이 그림이 바로 뜯구름 잡는 영적 전쟁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마음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강한 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져 있다면 이 그림처럼 엉뚱한 걸 거인처럼 느끼고는 뜯구름 잡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 속 거인이 어깨에 뭉둥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그제 나를 위협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과대해석해서 결국엔 뜯구름 잡는 허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약해져 있으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처럼 쓸데없이 놀라고, 쓸데없이 화내고, 쓸데없이 싸워버리는 뜯구름 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뭉게구름을 거인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분명한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마음을 달아버리고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19일간 진행한 영적 작전들은 뜯구름 잡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했던 허무한 작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

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결코 아닙니다. 악의 영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날마다 무장하시고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엉뚱한 것에 놀라고, 화내면서 싸우는 뜯구름 잡는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9대작전은 끝났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결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친구 운동’을 통해 혼자 싸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세 겹줄로 단단히 하나가 되어야 악의 영들과 더욱 담대히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따라서 내가 먼저 말씀과 친밀한 친구가 되시고,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맺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주 안에서의 믿음의 친구로 맺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세 겹줄로 뭉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서 날마다 힘을 합쳐 사탄과의 분명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



박규성 목사  
성동·광진교구  
목양부, 권사회

## 119일 동안의 간절함과 감사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의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란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염병으로 한국 교회가 대대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은 굉장히 낯설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영락교회는 2020년 ‘이때를 위함이라’라는 표어처럼 ‘119대작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를 준비해 119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119대작전』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다는 갈증이 더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고 지금은 이런 일상이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나의 청년 시절 한 장면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서 병아리들이 암탉을 졸졸 따라다니며 한가로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는 그 광경이 신기하기도 하고 예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미 닭이 목청을 높여 “꼬꼬댁 꼬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병아리를 해치려 살금살금 접근하던 고양이가 후다닥 도망치더군요. 병아리를 지키기 위한 어미 닭의 절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번득 떠오르며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19대작전 36일째, 시편 37편 8절 ‘분노’ 말씀을 묵상하다 혈기 왕성하던 젊은 날의 분노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35년 전의 저는 분노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스름한 퇴근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상에 오직 자신의 차만 존재한다는 식으로 주차된 차를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차를 응징했지요. 그 결과 물적 배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분노였지만, 실상은 저의 내면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뽀족뽀족했던 저를 주님께서 두드리고 만져주셔서 지금은 온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119대작전 90일째, 빌립보서 2장 3~4절 ‘이웃 돌아보기’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로 눈물 적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기도원에서 근무할 때 제가 속한 갈보리찬양대에서 미국 순회공연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순회공연이 산상기도회 기간과 겹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한창 클 때라 형편이 녹록지 않아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친 데 댁친다고 가고 싶은 미련 때문에 마음도 착잡한데, 팔을 다쳐 김스까지 하게 됐지요. 김스한 팔과 복잡한 마음으로 성가대에 앉아 있던 어느 주일 놀라운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팔을 다친 성가대원이 미국 순회공연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누군가 익명으로 저를 위해 헌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상 기도회 때문





에 결국 순회공연을 가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2009년에 경험했던 그분의 큰 사랑에 위로받고 감격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이 글을 통해 그때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었는지 알려드리고 싶고 감사한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 저도 이웃 돌아보기를 망각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속한 47기 안수집사회는 같은 기수의 집사님이 수요일예배 기도를 담당할 때면 함께 참석해 기도로 중보하고, 예배 후에도 기도 모임을 갖는데, 요즘은 대면 모임을 할 수 없어 매일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올리며 함께 중보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집사님은 소망하시던, 자녀가 교사

로 임용되는 응답을 받았고, 또 한 집사님은 기도 제목대로 둘째 며느님이 잉태하는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모두 내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47기 안수집사회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무장을 위한 영성훈련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이 성령의 인도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19대작전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19일이 끝난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1190일이 지나고 또 11900일이 지난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계획해 봅니다. **만남**



정광훈 안수집사  
인천교구

## 새벽기도와 묵상으로 더욱 감사했던 시간들

지난 2월 말 '제자양육 소그룹의 날' 찬양 예배와 여러 행사가 잡혀 있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소그룹 관련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취소되며 기약 없이 연기되고 말았다. 교회 내 새로 생긴 부서인 만큼 임원들과 함께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이었기에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컸다.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사정이었을 것이다.

요즘 교회에서는 어려워진 오프라인 모임을 대체하는 온라인 환경 전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대안과 방법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나는 한 개인의 성도로서 요즘 같은 때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거리 두기 예배가 막 시작된 지난 부활주일 한 달여 만에 교회에 나왔다. 코로나19 이전과 다르게 다소 썰렁한 교회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찾은 교회에서 평온한 마음이 들었다. 여러 생각이 교차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나님께 머물러야 할 시선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먼저 향하고 있진 않았는지, 예배와 말씀을 우선해야 할 공간 안에서 사역에 대한 일들로 예배당 건물들을 오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교회의 일들은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아가고 있었는지..., '그리스도를 신앙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데 나는 과연 교회였으며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먼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자신 앞에 던져 본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하던 일들이 잠시 멈춰지고 미뤄지는 시간 속에 있다. 돌아보면, 교회에서의 시간은 당연히 바쁜 시간이었다. 해야 할 일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 분주함은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었을까. 반강제적으로 멈춰 있는 이 시간 동안 어쩌면 잠시 숨을 고르며 묵상할 기회를 다시 주신 것 같다. '세상과 구별되게 부름을 받은 이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공동체인 교회가 어느새 주일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세상일과 조금 구별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이들의 모임'으로 변질하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나올 기회를 말이다.

일 년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몇 달 동안 병원에 계셨다.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식사를 못 하시고 한참을 재활하시며 지내셨기에 가족들의 걱정이 컸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에 많은 분의 중보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하



나눔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새벽기도를 통해, 119대작전과 묵상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았고,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분과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어 감사했다.

최근 가까운 거래처 사장님 한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다. 30년 이상 성실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최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관해 고민이 많다고 하셨다. 그간 IMF 등 크고 작은 위기들 속에서도 소위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으며 지내셨던 무용담을 가끔 들었던 터라 문득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어려움 속에서는 또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지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노하우가 어딤어, 맨날 고민하면서 내가 맡은 자리 잘 지키려고 바둥거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 왔지...”라고 하셨다. 전혀 가볍지 않은 묵직한 얘기로 들렸다. 성도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교회 바깥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그리고 예배와 교인들에 대해 더 혹독한 비난과 적대적인 태도들을 견지하고 있다. 진리의 분별이 없는 곳에서는 그저 모두가 똑같은 기독교였고 모두가 똑같은 교회였다. 교회 안에서도 온라인 예배와 교회 모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얘기를 여전히 오가고 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들에 대



해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어쩌면 코로나19 시대와 같은 외부 조건에 의한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희미한 믿음과 비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적당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어떠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위의 사장님 말을 빌려 나 자신에게 답해본다.

‘노하우가 어딤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바둥거리는 거지... 그러면 그만큼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겠어?’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본다. **만남**



민병준 집사  
종로·성북교구  
소그룹전담부 서기

## 내 마음에 훅 들어온 말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누구에게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 삶의 방식이나 성격, 그리고 습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는 8~9세 때부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신 30대 중반까지 ‘행복하다’, ‘즐겁다’ 같은 표현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가난했던 가정 형편 때문이었겠지만, 늘 걱정과 염려 등의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던 것과 관계있을 것 같습니다. 장남인 저는 집안의 ‘염려’를 친구 삼아 성장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시작과 결과 전후에는 염려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 살로의 의미를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지금도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염려’는 제가 가장 경계하고 기도하는 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지만, 위기

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떼를 쓴다고 하지요, 제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사태의 충격으로, 잘 다니던 회사가 조직 개편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억지 떼를 쓰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업상 협력을 위해 몇 번 만났던 다른 교회 분을 통해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창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창업 과정과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기적 같은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창업을 진행하면서 문득 제게 주신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던 나를 창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주신 몇 가지를 하나님께 서언하며 2011년 2월에 창업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모두가 경기 불황이라고 했지만, 회사는 날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2019년까지 꾸준히 성장했고, 어느덧 업력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듯,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상상도 못 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1월부터 예정된 상반기 해외 출장이 모두 취소되었고, 진행 중인 발주 취소 그리고 예정된 국내외 프로젝트가 연기되는 등, 4월 결산까지 회사의 매출 ‘제로(0)’라는 암담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제 주변의 중소기업들이 2019년부터 폐업하거나 폐업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나름 위로했는데, 막상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 염려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효기간 10년짜리 회사를 창업하게 하셨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폐업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직원들 퇴직금도 줄 수 있는데...’

암담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 침착하자고 다짐했지만, 축 늘어진 어깨와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오랫동안 제 옆을 떠났던 ‘염려’라는 친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일단 그 친구가 내 마음에 훅 들어오니, 불면의 밤이 다시 찾아오고, 제 삶과 마음에서 기쁨이 떠나 버렸습니다.

사순절 첫 주 어느 날 저녁, 그날도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잠시 기도 후 그동안 불안감에 멀리했던 QT 시간을 가졌습니다. QT용 말씀 묵상집을 펼쳐놓고 주제 말씀을 억지로 읽어 내려가던 중 갑자기 ‘염려’라는 친구가 다시 찾아와 보던 책을 바로 덮고 툭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QT 책자 밑에 깔려 있던 119대작전 책자가 눈에 들어왔고, ‘119’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마음에 불이 났어요, 나도 119 소방관이 필요한데...” 지금 생각해도 살짝 미소가 나오지만, 당시도 우연 같은 상황이 웃기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상황이 있고 난 후, 119대작전 책자 밑의 QT 책을 다시 집었습니다. 그리고 QT의 주제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훅 들어온 그날의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은 순간 눈이 밝아지는 느낌과 제 마음에 울컥 뜨거움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움직여 창업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폐업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정과 방법으로 온전하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과 더운 날 냉수 먹은 듯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황들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드리며 기다리자’라는 결론에 이르니, 갑자기 ‘염려’라는 친구가 떠나고 답답했던 마음에 평화가 온 듯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119는 내 문제를 위해 보내주신 소방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위해 일하시는 동안 나는 119에 집중해야겠구나’ 다짐했습니다. 왠지 나의 상황과 119라는 주제어가 잘 맞춰진 기어의 맞물림 같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지날 수 있도록 제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 QT를 마치고 대작전 6가지 목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주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주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니 119대작전의 주제는 말씀(통독, QT), 기도(기도 제목 포함 후원 기관, 선교사, 후원 아동 등), 금식(매일 점심 한 끼, 인터넷, 핸드폰 매일 2시간), 독서(신앙, 교양 총 6권) 그리고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 안부 묻기(전화/SNS)) 등 5대 핵심 목표로 정리했습니다.

119대작전의 종료를 앞둔 지금, 최소한 무승부 포함 100승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 대작전 100승이라는 목표보다 119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제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신다!' 등 제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모두에게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9대작전을 시작할 때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최악에는 폐업할 수도 있다'가 전제였으나, 5월 중순

부터 신규 발주를 포함해 취소, 연기되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일정이 당겨지고 하더니 이 글을 쓰는 6월 말 기준에는 어느덧 2019년 한 해 매출과 동일 수준까지 채워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이 좋다' 말할 수 있겠으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입니다.

어느덧 공식적인 119대작전은 끝났지만 119 기간 동안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호와 이레는 평생 간증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119대작전을 계속하겠습니다. **만남**



최은오 집사  
성남·분당교구  
시설관리부 서기

##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은퇴(隱退)’하면 왠지 즐겁기보다는 쓸쓸한 생각이 든다. ‘숨는다’라는 뜻의 은(隱)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영어로는 ‘retirement’라고 하는데 이 또한 어원이 ‘후퇴하다’라는 말로 그다지 밝은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타이어(tire)를 교체(re)한다’라고 풀이하는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준비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은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퇴직 = 은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퇴직은 사회(회사)가 규범으로 정한 나이에 이르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만, 은퇴는 전적으로 ‘나의 의사에 따라’ ‘내가 정한 시기’에 하면 된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은 60세에 퇴직하더라도 상당 기간 은퇴 생활을 해야 하니 가급적 은퇴 시기는 늦추는 것이 좋겠다.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은퇴 생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은퇴 생활과 관련된 걱정거리 중 세 가지를 꼽으라면 건강, 재정, 외로움을 들 수 있겠다. 이들 셋에 대해 생각해본다.

### 건강

우리나라의 2018년 기대수명(그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은 82.7세다(남자 79.7년, 여자 85.7년). 기대수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대로라면 100세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시편 90:10)라고 말한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으니 우리의 수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노력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명이 있는데, 바로 건강수명(질병·부상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64.4세다. 바꾸어 말하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차이 약 18년 동안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외형은 건강해보이지만 심혈관·뇌혈관 질환, 관절 통증 등으로 인해,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 생활로 인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상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의 삶은 우리 신앙인들의 귀감이 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신 34:7)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네 가지만 추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65세 이상 되는 시니어(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치아 관리의 잘못’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금은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그 비용도 많이 저렴해졌는데, 임플란트 방법이 도입된 초기에 열 개 이상을 시술했던 어느 선배는 최고급 자동차 한 대 값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치아 건강 외에 신경 쓸 것 중의 하나가 관절의 건강인데, 나이 들어 걷지 못하고 눕게 되면 체력이 급격히 쇠약해진다고 하니 일상 중에 걷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하체를 튼튼히 해야겠다.



BMW(Bus 버스, Metro 지하철, Walking 걷기)를 자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 많은 돈을 들여 건강식품을 먹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느니, 하루 세 끼 균형 있는 식단으로 소식(小食)하고 유튜브의 많은 건강 체조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꾸준히 운동하면 최소한의 체력과 건강은 유지될 것이다.

## 재정

‘나이 들어서는 입은 닫고, 지갑 주머니는 열어 야 한다’라는 우스개 얘기가 있다. 열 수 있는 지갑 주머니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은퇴자의 상당수는 은퇴 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는 월 생활비 평균인 200만~300만 원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연금 등 일정한 월수입을 확보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은퇴

생활자의 월 생활비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본 식·주거 생활비보다는 병원비, 사회 활동비 등이다.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경조사비는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현역 시절보다 그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지출만큼은 더 줄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성장, 고금리 시절에 사회생활을 하다 지금 같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은퇴 생활을 시작하면 돈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월 50만 원의 수입은 요즘과 같은 연 1.2%의 은행이자라면 5억의 예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이자와 같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커졌다는 것이다. 1990년대 내가 주재원으로 동경에서 생활할 때 다니던 교회에 60세 되시는 재일교포 권사님



이 계셨는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 갔다가 그 권사님이 계산대에서 출납원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한 경험에 있다. 나중에 권사님과 대화 하던 중, 권사님은 건강할 때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이 고령화, 저성장 등 많이 닮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이 들더라도 건강하다면 일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본인의 자세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는 닮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많다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주변의 이야기나 신문 지상을 통해 접하기도 한다. 성경의 잠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8~9)

## 외로움

직장을 퇴직하면 사회생활과 점점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 보니 나가지 않던 동창 모임에도 나가고 이런저런 취미활동을 찾아 나선다. 주부의 경우 자녀가 결혼해 출가하면 홀가분하기보다 외로움으로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을 겪는다고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취업난과 늦어지는 결혼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찬 둥지 증후군(Crowded Nest Syndrome)’을 겪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동창들도,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가

지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때의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외로움을 이겨내는 고독력(孤獨力)이 필요하다. 외로움과 고독은 감정이 다르다. 감옥 독방에 있는 죄수에게는 외로움이지만, 수도원 골방에 있는 수도사에게는 고독함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홀로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했다. 우리 신앙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존재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러했고,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피한 엘리야가 그랬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게 서면 외로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지금 은퇴 생활을 하는 신앙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마음의 부담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일 것이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것이든.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과거’가 있다. 우리를 슬한 어려움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다는 신앙 체험이다. 이것이 미래의 걱정과 불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다. **만남**



김종태 장로  
강남교구  
前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장



## 부부 예배로 여는 하루

###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영락교회 안수집사가 되어 13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다 은퇴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은퇴 즈음에 대학 출강도 종료하게 되어 모처럼 긴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여 동안, 아침마다 둘이서 매일 성경(한국성서유니온 발행)으로 말씀을 묵상한 후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여행하는 것이 결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심한 비바람 속에서 피레네산맥을 넘고, 햇볕이 짹짹 내리쬐는 허허벌판을 지나면서 때로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해 온종일 서로 아무 말도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도착한 산티아고 성당 기도실에서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아내를 힘겹게 한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부장적이고 체면 위주로 살아온 나의 생활방식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내와 다투고 난 후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갈등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은 참으

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힘들고 집에서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교회 관련 봉사와 친구들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외출해서 늦게야 귀가하던 일상에서, 아내가 마련한 세 끼 식사를 함께하면서 지내는 생활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영락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119대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변화와 함께, 이웃을 섬기고 살리기 위한 여섯 가지 행동목표를 정해서 실천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경건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언제나처럼 QT하듯이 혼자 하면 되겠지’하고 가볍게 생각했으나, 아내의 제안에 따라 자기 변화를 위한 세 가지, 부부 상호 간을 섬기기 위한 세 가지씩의 행동목표를 정하고 함께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3월 6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부부예배는 여는 기도, 찬송, 말씀 읽기, 말씀 묵상과 김운성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 후, 묵상 말씀에 대해 서로 간

중이나 은혜를 간단히 나눈 다음에 나와 아내가 연이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순서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결단한 행동 목표에 따라 실천한 내용을 나눈 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해 승·패 기록을 교회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 이때를 위함이라: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얻는 기쁨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솔직한 내면을 드러내거나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고 화가 나서, 이어지는 예배 시간조차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기를 힘쓰며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언제나 내 편이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의 일이 끼어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소홀하게 대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119대작전을 통해 아내와의 불편한 나눔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무심코 저질러왔던 나의 잘못된 언행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오랜 습관과 언행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초기에는 나의 행동목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실제적인 실천과 적용보다는 그저 이해하는 정도에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아내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나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후하게 평가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행동목표로 수정하면서 점차 실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

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 말씀 묵상과 통독 계속할 것

또 119대작전 예배와 함께, 성경 읽고 요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성경 요약을 제안했을 때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성경 요약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깊지 않아서 읽어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자세로는 요약하기가 어려워서 성경 사전, 현대인의 성경 등을 찾아가며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분명해지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전문상담사인 아내는 논문과 보고서를 쓰면서 온종일 지내다가 집 근처 생태공원을 걷습니다. 20만 평 가까운 공원의 둘레길을 둘이서 손잡고 걸으면서 새소리와 함께 시절 따라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합니다. 아내는 인터넷 검색으로 새롭게 알게 된 꽃 이름을 부르며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119대작전이 끝나도 우리는 말씀 묵상과 통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 년이면 세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함께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녀들과 이웃에게 넉넉하고 따뜻한 삶을 보여주는 좋은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남**



윤상우 은퇴안수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 코로나19 시대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릴 때

###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3-14)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세 가지 자연재해가 반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 재앙입니다. 둘째는 메뚜기가 소산을 먹어 치워 양식이 부족한 재앙입니다. 셋째는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해 고통당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인류 역사상 반복해서 등장했지만, 특별히 코로나19 재앙은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이 막기 어려운 재앙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땅의 치유를 위해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

하십니다. 첫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땅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더는 악을 가까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 황폐한 땅이 울고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은 단지 농사짓는 땅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신 터전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나서 땅의 소산을 먹고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



여받았습니다. 그 땅은 가정, 학교,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등 사람이 살아갈 곳입니다.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이 병들고 황폐해지면, 그 땅이 치유되기 위해 책임지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땅에 거하고 지키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울고 있습니다. 기근과 메뚜기와 전염병으로 얼룩진 땅, 코로나로 얼룩진 땅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땅의 황무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린 황폐한 땅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황폐를 더는 견딜 수 없어 탄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땅의 치유를 위해 인간의 회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땅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중보자들이 힘써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땅은 황폐한 채로 머물러 마침내 땅과 거기 거하는 인간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 황폐한 땅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자

이제 우리가 황폐해진 땅의 치유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가정이 우리의 소중한 땅입니다. 가정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그곳에 있는 가족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부모가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폭력을 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기심으로 찢기면 모든 가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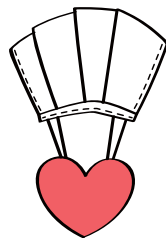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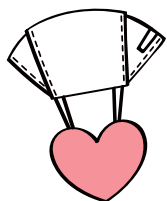
슬프게 합니다. 따뜻하고 정결한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우리 교회, 영락교회는 우리 믿음의 터전입니다. 그 터에서 지금까지 성장한 우리가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이 땅에서 신앙을 배우는 새로운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누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지친 영혼이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신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영락교회가 생명이 흐르는 터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우리의 땅, 반만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생명의 땅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 나라가 정결한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되도록. 이 땅이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황폐해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 의해 치유되는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남**



배정훈 교수  
장신대 구약학



## 눈을 통해 채워야 할 것들

지난 6월의 어느 주일, 예배 인도를 앞두고 교회 본당 내 예배준비실에서 급히 마스크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를 마친 뒤에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마스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 평소에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 신체의 일부인 양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는 스마트폰과 더불어 우리의 새로운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너나없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간혹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상징인 동시에 상대를 향한 배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마스크지만 마스크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뒤로 가려버진 ‘입가의 미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나 중요해진 마스크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위

로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던 ‘입가의 미소’를 볼 수 없습니다. 마스크로 상징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이 마주 앉아 서로의 침이 튀는 것을 개의치 않아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대화를 주고받고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지쳐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중에 우리의 ‘눈’을 하나의 답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눈(目)’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예전보다 입을 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을 우려해 입을 덜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대신 우리는 입을 덜 사용하



는 만큼 눈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 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사용률과 텔레비전 시청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아졌으리라 예상합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눈을 사용하는 일, 즉 무언가를 보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전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보고 계신다는 데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달리 질문하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 넣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켜켜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입이 제한된 만큼 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담아내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제 본 영화에 관해 자연스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들(또 듣는 것들)은 우리의 내면을 채워 우리의 입을 통해 표현됩니다. 아마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말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 눈이 건강하면, 즉 보는 것이 건강하면 온몸과 전인격, 그리고 삶이 건강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며,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보다는 실내에 있는 일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지금, 우리의 눈이 더 건강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거룩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더 선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우리의 눈은 마스크로 가려진 우리 입이 지을 수 있는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입가의 미소는 연습하면 지을 수 있지만, 눈빛은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은 입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위로, 우리의 눈빛을 통해 미소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더 선한 것들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눅 10:23) **만남**



탁현수 목사  
용인·화성교구  
제자양육훈련 소그룹전담부

## 해방 75주년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지 75주년이 되는 이때,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민족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굴욕의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해 주시고 75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평화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북한은 일거에 남한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 제조에 몰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에 침략했던 일은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은 채 한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개방경제를 하면서 돈 좀 벌었다고 한국을 무시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한국을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가호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지속해 나가려면 지혜로운 국가 책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는 중국의 변방 국가로 취급받아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고, 침략을 받지 않으면 치욕의 지배를 받아 온 역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을 만나면서 개국 이래 가장 큰 경제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한-미 군사동맹이



있었기에 중국이나 일본이 감히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로지 국민이 합심해 경제발전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거와 비교해 국력이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도 위협 대상입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을 잘 붙잡아 두어야만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 내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잘 유지되도록 국가 외교를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합심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준(準) 강대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준 강대국이라는 말을 처음 써 봅니다. 한국이 강대국은 아니라도 준 강대국이 되겠다는 꿈을 꾸어 보지 못했기에 감히 준 강대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를 다니다 보면 한국의 자동차가 뽐뽐 달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세계 시민들의 손에는 한국이 만든 핸드폰이 들려있을 만큼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온 국민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러시아의 힘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준 강대국이 되는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일본 정도의 국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해 나라의 힘을 더욱 강성하게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중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가 한국을 깔보지 않고 심지어는 동맹국인 미국마저도 한국을 힘 있는 나라



로 간주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해방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중진국이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빈곤한 국가를 구제하는 선진국이 되어 기독교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복음전파의 모범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남**



김경민 안수집사  
강동·송파교구  
한양대 특별공훈교수

## 복음통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

- 6월 17~21일 온라인과 함께 진행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을 맞은 올해, ‘복음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사 6:8)을 주제로 23번째 북한선교대회가 개최되었다. 어느 때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복음통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명을 발견해 복음통일의 일꾼으로 나서고자 하는 깊은 뜻으로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기존의 북한선교대회를 기반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영락포럼 및 교육부와 함께 진행한 ‘복음통일 퀴즈’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는데, 이것은 향후 북한선교대회의 다양성을 구축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원년이 되리라고 본다.

‘2020 북한선교대회’는 6월 17일(수)부터 21일(주일)까지 열렸다. 대회 일정 이전인 6월 초 3주간 수요일

배(6월 3일, 10일, 17일)에서 북한동포사랑 기도회를 진행했다. 평소 매월 첫 주 수요일배 때 북한동포사랑 기도회를 했는데, 6월 북한선교대회 기간에는 3주에 걸쳐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남북으로 나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이어받아 복음통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집중해 기도했다.

이번 북한선교대회에서는 3개의 동영상상을 준비해 북한동포사랑 기도회와 북한선교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상영했다. 1차 동영상상은 ‘6·25전쟁 70주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목으로 4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참혹한 6·25 전쟁의 아픔과 갈라진 한민족 틈에 흐르는 주님의 눈물의 강에 오늘 나의 한 방울 눈물을 보태는 내용이였다. 2차는 ‘전쟁 속 기독교 믿음의 유산’으로, 전란 중에 교회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민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내용을 담았다. 김응락 장로님과 김창화 집사님의 순교적 삶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신앙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3차 동영상은 ‘2020 북한선교주일’ 주제 영상으로, 복음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통일의 문이 열릴 때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게 하고, 기도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 물 주고 가꾸며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이었다.

‘2020 북한선교대회’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복음통일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병행한 활동 중 첫 번째는 ‘복음통일 퀴즈’, 교육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전 교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그려 홈페이지에 올리는 활동이다. 세 번째는 골든벨 퀴즈로 소년부는 온라인으로, 중·고등부는 예배당에서 진행했다.

영락포럼은 이번에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을 돕는 활동을 하던 중 북한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949일간 북한 감옥에 갇혔던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복음통일과 북한선교를 향한 나의 사명’을 주제로 말씀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선교해야 한다. 북한 동포는 못 먹어 굶어 죽고, 한국은 너무 잘 먹어서 병들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임 목사님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살려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골육이요, 형제다”라는 말씀으로 북한선교의 사명을 일깨웠다.

북한선교주일 당일에는 베다니광장에 설치한 교회 모형과 전시 부스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열렸다. 교육부와 동들과 일반 성도들이 모두 참여한 ‘복음통일 씨앗 심기’는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20 북한선교대회’를 잘 끝마친 것을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 일부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아낌없는 협력으로 힘을 보탠 IT미디어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온 교우들이 정성껏 헌금하신 북한선교헌금은 북한교회 재건, 자유인사역 지원, 북한 긴급지원사업에 귀하게 사용되어 복음통일의 씨앗이 될 것이다. **만남**



권기용 안수집사  
강동·송파교구  
북한선교부 차장

## 모이지 못해 더욱 커진 사랑의 사역

세계적인 유행병의 위기 중에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만남』을 통해 모든 성도님과 나누기 원합니다.

### 강력 봉쇄령 속의 인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나타난 인도는 현재 82만1,458명(2020년 7월 10일 현재)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13억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82만 명이면 그리 큰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3월 22일부터 전국에 강제 봉쇄령을 내리고 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경찰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제 봉쇄령은 5월 30일까지 63일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졌음에도 하루 확진자가 2만 6,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식품점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관공서, 병원, 회사, 쇼핑몰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집 밖 출입을 절대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중지되었고 강제 봉쇄령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마을

봉쇄로 인해 도시 빈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집에 갇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을 맞았습니다. 일을 못 하니 식품 살 돈이 없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임 금지로 인해 모이지 못하지만, 각 교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음식 나눔 사역을 시작



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인도인들에게 음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음식 꾸러미에는 한 가정이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담았고, 이 식량을 받은 현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위치한 5개 지역, 240개 가정으로 약 1,200명의 인도 현지인들에게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주님의 귀한 구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7월부터 9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이 금지되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인도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영락의 가족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정연수 선교사  
인도



## 북한 가정에 보낼 성경 500만 권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한국국제기드온의 영락교회 순방예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에도 교회 순방을 허락해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 제작을 위해 당일 2,216만 4,200원을 헌금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금액도 1,300만 원 정도였으며 몇몇 분은 정기 후원자로 등록하셨습니다. 작년보다 25% 정도 줄었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면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기드온을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성경 배부를 통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국의 기드온은 1963년 당시 영락교회가 개척한 13개의 농어촌 교인들에게 남녀면려회 주관으로 성경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던 데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현수길 인하대 영문과 교수는 유학차 미국에 갔을 때 호텔에서 봤던 기드온 성경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국제기드온 본부에 성경을 요청하자, 본부는 기드온 사역을 위해 먼저 한국에 기드온단체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기도와 지원으로 1963년 10월 22일 극동지역담당 에버렛 아닌(Annin) 국제기드온본부 이사가 참관한 가운데 영락교회 최창근(동영물산 사장), 장태순(무역회사 사장), 정석복(대한모방 상무이사), 현수길, 김정순(보성여고 교장), 김익환(페인트공장 사장), 김수철(서울대 치대 교수), 김영철(스타 섬유주식회사 사장), 이규근(대성제재소 지점장), 함종섭(동영직물 상무이사) 등 10명과 새문안교회 방순원(대법원 판사), 허봉락(일신방직공장



1963년 출범한 한국기드온의 서울캠프 조직 기념 사진. 고 최창근 장로(사진 뒷줄 가운데) 등이 함께했다.

영업부 이사) 등 2명이 서울 코리아하우스에서 모여 국제기드온 서울캠프를 창립함으로써 65번째 기드온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31일 현재 한국국제기드온은 본부와 4개 지역연합회 하에 총 124개의 캠프에서 2,000여 명의 기드온 회원과 약 1,300명의 부인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프는 한국국제기드온의 모 캠프로, 영락교회가 서울캠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한국국제기드온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기드온은 특별히 남북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각 가정에 전할 5백만 권의 성경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체 운영과 성경배부 활동 등을 위한 모든 경비는 기드온 회비와 헌금으로 충당하며,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은 단 한 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남**



안태운 안수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한국국제기드온 서울캠프 회장



## 어설픈 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자유를 찾아 중국 거쳐 한국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활력 강하고 든든했던 어머니와 항상 모든 것을 받아줄 듯한 기둥 같은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저는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까지 우리 집은 알 사람은 다 알 정도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제가 6살 때부터는 중국을 통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식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장사는 불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집은 보위부의 감시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9년 넘게 거래하던 중국인 파트너가 외상으로 물건들을 가져간 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은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아버지의 사회적 입지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저는 불안감과 공포로 삶의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 안에

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본인의 노력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죄가 될까? 일해서 부모님을 돕고 싶는데, 왜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이런 곳에 사는 걸까?” 결국,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돈을 벌어 아빠 엄마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어리석고 막연한 생각으로, 부모님 몰래 중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삶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만 17살 때 중국 양꼬치 식당에서 일했는데,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거의 2년 동안을 종업원으로 일만 했습니다. 더운 날 불을 나르다 데어서 울고, 또래 친구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면, 공부하고 싶어서 울고, 가족을 떠나 부모님을 아프게 한 나 자신이 미워서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게 했던 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지만 돈 한 푼 받을 수 없는 ‘북한 사람’이라는 신분과 너무 쉬고 싶는데 그 또한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식당 앞 자전거에 기대어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듯 하늘에 큰 달이 떠 있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신이 정말로 있다면,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저 공부 좀 하게 주세요요. 남한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을 내뱉은 이후로 한국으로 가고 싶



김연주 성도  
자유인에배부

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후 맞은편 김치가게에서 일하던 조선족 아주머니를 통해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듣게 되었고 결국 브로커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안에 잡힐 뻔한 위기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절박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전하게 한국까지 인도해주셨습니다.

2009년에 한국에 도착해 2010년 우연한 기회에 영성 캠프를 가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위로였고 마냥 좋았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해서, 3년간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 힘으로 공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야심이 점차 커졌습니다. 대학 생이 된 후에는 저의 계획이 실패하자 하나님께 불평하게 시작했고, 어느 날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던 길에서는 하늘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다가 스스로 놀라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던 중에 영락교회로 와서 공동체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의 헌신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과 표정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불평하고 살았던 지난 4년간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갈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대화의 핵심은 ‘경청’이라는 설교를 들면서, 제 기도 가운데는 경청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고집과 의지로 선택한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을 소외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땅에서 어설픈 제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북한 땅에서 벗어나 찬양할 수 있는 자유와 지금 이곳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 다섯 살 때 만나 뵈 북한인 큰아버지 분단된 한반도 회복을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윤아 성도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다시금 복음통일의 사명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2차 이산가족 상봉’ (2000년 11월 30일 ~12월 2일) 때, 북한에 계신 큰아버지를 생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당시에 5살이라 세세히 기억 나진 않지만, 상봉 장소인 호텔에 맞난 간식과 음료들이 있었고, 큰아버지, 아버지, 고모, 작은아버지께서 서로 껴안으며 눈물 흘리고 계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가장 생생한 기억 중 한 가지는 바로 헤어지기 전에 방을 나오며 큰아버지께서 제가 신고 있는 점정 구두끈을 눈물 흘리시며 묶어주신 것입니다. 버스에 타고 모두의 눈물바다 속에서 떠나가는 큰아버지의 슬픈 얼굴을 바라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뼈아픈 생이별을 경험했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 다시 뵈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한반도의 복음통일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저를 ‘복음통일학교’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민족 복음화에 대한 소명과 비전을 강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또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심과 같이, 하나님은 분단된 이 한반도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정하신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열심히 닦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통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통일된 조국의 소망을 품고,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것입니다.



김윤아 성도  
청년부 꿈꾸는 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과 같이, 저는 내 곁에 보내신 자유인들을 섬김으로써 ‘복음통일’의 첫걸음을 떼기로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원 사역 지원’과 ‘뉴코리아 국제학교’ 보조 교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



해 1월 처음으로 안성 하나원 안에 있는 하나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남북을 아랫동네, 윗동네라며 친근하게 표현해주신 것이 인상 깊었고, 언젠가는 구분 없이 오가는 한 동네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귀한 자유인 청소년들도 만났습니다. ‘감사’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변칙 손을 들며 “충에 맞지 않고 살아서 이곳에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이곳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을까 마음이 무거웠고, 한편으로는 이 학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코리아국제학교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짧은 기간, 제한된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선 멈추지 않고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인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국 선교사님 부부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계신 곳에서 영상을 통해 아침 일찍 열정과 정성을 다해 영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표어, ‘복음통일! 주의소원, 나의 사명’과 같이 복음통일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제 말씀인 이사야 6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 경청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2020년 교회 표어처럼, 우리 모두 바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선교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

2001년 교사양성반을 수료하고 그해 12월부터 베드로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다. 중간에 5년간 미국 이민을 가는 바람에 나성영락교회 대학부 교사로 섬기기도 했지만, 귀국한 후 지금까지 베드로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베드로부를 떠나 있던 기간에도 베드로부와 관계는 지속해서 이어졌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부 교사로 봉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가보다 그 학생들의 성장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에 의해 나 자신이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베드로부인 것 같다.

교사로 첫발을 내디디면 교사의 책임과 소명으로, 자신의 성경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전달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픈 사명감에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많이 본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교사에게 맡겨진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교회학교는 다양한 연령(학년)층과 특수 목적(사랑부, 베드로부 등)의 공동체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에 대해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한다.

베드로부는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학생들의 예배 공동체이다. 베드로부를 찾는 학생들의 심정은 여타 교육부 학생들의 마음과는 여실히 다르다. 실망, 좌절,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등등...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사는 자신의 교육(성경 공부 등)으로 학생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이야기(고민 등)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의 공과를 전달하는, 한 영혼의 동반자일 뿐이지, 결국 학생의 변화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2006년) 김요셉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사들의 한마디 말보다 행동이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 연락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사, 학생들보다 항상 늦게 도착하는 교사,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교사, 예배 시간 외의 경건회 등 교사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는 교사들을 보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대예배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으로 봉사해야 하므로 지금 맡은 베드로부 예배/공과공부



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반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애초에 구역 전도사님의 연락을 받으면 대예배 봉사 시간을 조절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다른 분에게 부탁드려야 하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도 학생들의 교육부 예배보다 어른들의 대예배가 더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실까?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말씀처럼 교사는 능력과 실력에 앞서 성실함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뒤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나태한 자세는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뿐이다. 매 주일 학생과의 만남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일이고 기쁜 일임을 느끼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신앙적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의 한 단계로서 교사를 택하는 성도들도 은연중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들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교사 리바이벌』 2007)라고 김남준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베드로부의 시작을 함께하셨던 김동호 목사님도 “교사란 청년 때 교회생활 하다가 한두 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봐야지 하고 마구잡이로 시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사가 되도록 욕심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교사 바이블』 2002)라고 말씀하신

다. 안일한 풍조를 따라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품고 행하라는 말이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의 일화가 있다.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체신부장관을 맡아 달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지만, 그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에게 4년 동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 주일 교회학교 교사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그는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었다고 한다.

교사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교사의 삶 속에서 그 관심이 나타나면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그 삶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만남**



전의혁 집사  
용인·화성교구  
베드로부 교사

## ‘언제나 그래왔던 것’의 감사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출근길에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끈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종로구 00동 코로나19 확진자 나왔다… 00세 남성’

뉴스에서 발표한 곳은 제가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휴관을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량 감염사태가 일어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주일성수조차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언제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했던 분들을 전화로만 소통해야 했고, 매주 함께 웃으며 찬양하던 성도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가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사실에 웬지 모를 허무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서 매 순간순간 크고 작은 사건으로 말을 건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큰 시련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전쟁 중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주일성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의 저는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역사가 한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상처럼 느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왔던 것’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붙여 기도드렸습니다.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잊은 채 말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염을 막는 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풍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마스크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차츰차츰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언제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어깨를 맞대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풍경은 거의 볼 수 없습니



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의 교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채워지는 본당의 좌석을 보면 어쩌면 영영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를 이어나가기 위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처럼 전화로, 문자로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고, 오래된 기억 속에 있던 인연을 떠올리며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상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주일을 잊지 않기 위해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껏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대량 감염사태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혼란은 전보다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생활 방역

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그것들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서는 습관이 되었고 생활이 되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복지관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방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영락교회 또한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던 온라인 예배를 현장예배와 병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찬양의 소중함을 되새겼으며 매주 돌아오는 주님의 성전에서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맞이해 전과 다른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이제야 느끼게 되었고, 이전보다 조금은 더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또다시 ‘언제나 그래왔던 것’이 되어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의 감사함을... **만남**



조수아 성도  
성동·광진교구  
호산나찬양대

## 내맘대로 정한 길을 막으신 하나님

첫아이가 태어날 때쯤부터 책장 맨 앞줄에는 ‘육아 성공기’ ‘초등학교 1학년이 꼭 읽어야 할 책’과 같은 제목의 책들이 쌓여만 갔다. 이 책들을 한 권씩 읽어갈수록 내 맘속에는 이루고 싶은 목표와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났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이가 총명해져야 했는데,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육아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머느리의 다짐을 듣고, 첫 손주를 위해 어머님께선 여러 전집을 선물해주셨고, 나는 아이가 잠들기 전 10권 이상의 책을 매일 읽어주려고 노력했다. 집안일을 맡기면 아이를 소홀히 돌보실까 봐 아이만 돌보는 이모님을 두고, 아이 돌봄의 우선순위로 책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렸다. 하지만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라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이에게 시작된 이런저런 교육과 유치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때마다 친정엄마는 “분수에 맞게 보내라”라는 염려 어린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아이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나를 멈출 수 없었다. 초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다. 사립이라 버겁게 보내고 있었으나, 매주 예배 시간, 기도하는 선생님들, 학교의 모든 유인물에 나타나

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모든 학교 모임에 기도가 처음이 되는, 그야말로 공부보다는 하나님 관련된 것을 먼저 익히게 하는 학교라, 내가 직접 못하는 것-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을 나 대신 어느 이상은 꼭 해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지기까지 했다.

과거와 현재의 나의 삶보다는 나은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자녀교육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우선이 되어가던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세상 속에서 내맘대로 정한 길을 막으시겠다고 하신 거였다. 껍데기뿐이었던 나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는 날들이 연속되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날들이 이어져갔다. ‘네가 해야 한다. 네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맘속에 꾸준히 차올랐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은 누구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다. 내가 내 아이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의 청지기이므로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다.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부족한 인간이 말씀대로 못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인간인 날 이해해 주실 거야. 난 해낼 수 없는데…」가 우선인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동기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나로 변화하게 해주셨다.

돌아보니, 내 엄마의 모습이 바로 그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담당하시는 모범답안이었다. “숙제 다 했니?” “시험 점수는 몇 점이야?”가 아니라 “오늘 힘든 일은 없었니?” 하시며 내 표정을 살피시거나 아니면 주절주절 말 많은 딸이 하는 얘기를 그저 들어주고, 비슷한 에피소드나 엄마가 경험한 감동 어린 이야기들을 꾸준히 들려주셨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한 아나운서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많은 편지가 본인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던데, 나도 그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손편지를 엄마에게 받아왔다. 수많은 편지에는 나에 대한 염려 조금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라’와 같은 축복의 말씀들이 늘 적혀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항상 엄마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었다. 어릴 적 나는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이 언제나 불편했다. 반대로 엄마는 심지어 낮익지 않은 분들도 집에 모셔서 다과나 소찬을 차리시고 그분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학교 오가며 만났던, 거리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은 꼭 우리 집에 오셨다 가셨고, 한동안 꾸준히 초대받으시는 정기적인 손님이 되시곤 했다.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나를 위해 더 많은 학원을 알아봐 주시거나, 진로에 대한 엄청난

정보력으로 나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맘은 전혀 없었다. 물질적으로는 여유 없는 삶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여유가 많은 삶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살고 계셨다. 내 눈으로는 어느 하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보임이 없는 엄마의 믿음 생활을 기억해낼 수 있다.

엄마가 보여주신 자녀교육의 청지기적 삶은 이제 나에게 엄청난 도전이 된다. 다행인 것은 엄마와 엄청나게 다른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심히 빔어주고 계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들과 딸이 나와 함께 살아가 줘서 감사하고, 그들이 피곤하고 그늘지는 날엔 그들의 평안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아직 청지기의 사명이 충분히 감당되지 않는 믿음 생활이기에 아이들을 위한 축복기도 뒤에 나를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간다.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이에게 나의 부족함을 알린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실수를 부끄럽지만, 슬그머니 꺼낸다. **만남**



이지연 집사  
강동·송파교구



##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락교회 주일학교의 유아부와 유치부에 5살, 7살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부모로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원고 집필을 부탁받았을 때,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맡아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으며, 때로는 두렵고 또 후회되는 일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타이틀이 매 순간 무겁게 느껴지고, 더 나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 보통의 평범한 부모이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수많은 가정에 저희가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밤에 아이들을 재운 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던 중, 문득 양육과 관련해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수많은 부모가 서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될 것으로 판단이 들었고, 나아가 저희 부부의 마음도 토닥토닥 위로해 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양육에 관해 이야기한 것들을 대화체 형태로 옮겨 보았습니다. 아래 대화들은 한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의 대화들을 편집한 것입니다.

### 〈자녀들은 부부의 판박이: 부모의 행동에 대해〉

아내: 여보, 당신은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를 원해?

남편: 음... 나는... 아이들이 마음 편한 친구를 대하듯이 나를 대하면 좋겠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모범을 보여야겠지? 요 며칠 전에 첫째 아이가 책 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뭐야.

아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그날 내가 애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아 글썄, 하랑이(가명)가 한쪽 팔로 턱을 괴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내가 읽어주는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세는 나쁜 자세야”라고 알려줬더니, 하랑이가 하는 말, “아빠도 그렇게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도 따라 하는 건데요?”

아내: 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익히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아이들 눈이 등에도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니까.



남편: 나도 몰랐는데, 하랑이 말 듣고 보니 내가 피곤할 때는 애들에게 책 읽어줄 때 그렇게 누워서 읽어주고 있더라고. 하랑이 모습 보면서 순간 멍!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우선 나부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아내: 여보, 나는 오늘도 하랑이, 하영이(가명)를 또 혼냈네요….

남편: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내: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다가, 어느 순간 서로 자기가 긴 모양 장난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뺏고 난리가 난 거지.

남편: 왜 어떤 날은 싸우고 있어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놔두고, 또 어떤 날은 갈등 상황에 개입해서 혼내? 특별한 기준이 있어?

아내: 음…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생각해보니 혼내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유독 더 화를 내게 되고, 내가 기분이 좋은 날에는 웬만한 상황들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이러한 훈육 방식은 아이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텐데…. 어떻게 해야 좋지? 훈육은 아무리 경험해도 어려워.

남편: 음… 기도 있잖아, 기도. 물론 흥분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간구하면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주실 거야. 당신이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 “아이들을 지혜롭게 양육하는 엄마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밤에만 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봐.

**아내:** 그러게,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되네.

**남편:**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것’ 말이야. 그래서 하랑이, 하영이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해 줄 수 있지.

**아내:** 하긴...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셔”라고 말하면서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하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고.

**남편:** 아이들이 앞으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아내:** 그래, 맞다! 나도 믿음이 좀 더 신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 이제 매일 성경도 같이 읽을 시다.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저희는 아이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보통의 부모입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재능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한 사회 속에서 잘 어울려 살아가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자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부모가 ‘엄청난 노력’으로 뒷받침해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부모의 ‘엄청난 노력’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희 부부가 생각한 ‘부모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에게 모범 되기’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보이기’. 저희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흐름으로 대화가 오갔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남』 지면에 저희 부부의 글이 실린 만큼 전보다 더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양육에 보람도 있지만, 그 속에는 고통과 힘듦도 공존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모든 가정의 평화,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의 일상 에피소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



신동언 집사 강경미 성도 부부  
강동·송파교구

## 코로나19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심리적 방역은 스스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구약 시절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장자가 사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심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청결하게 씻고 개인위생을 지키며 자신의 면역력을 기르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자.

이러한 난국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간구할 기도의 내용으로 좀 더 절실히 다가온다.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코로나를 이겨나갈 힘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마음에 더 와닿는



박용천 집사  
강동·송파교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다. 공부는 하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한 후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인 것처럼 말이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것조차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간구가 더 와닿는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신앙인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피할 길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코로나19도 기꺼이 이겨나가야겠다. 성경에서,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 선배의 담대하고 용기 있던 모습을 듣고 배우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국민을 위한 10가지 마음건강지침을 소개한다.

### 1.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감염 위기 상황에서의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불안은 순기능도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은 우리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소진해서 면역력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의 방역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 2.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세요.

감염에 대한 불안은 정보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뉴스를 백번 본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정보가 백번 얻어지지 않습니다. 정보 선별에 우선순

위를 두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며 SNS와 뉴스를 시간을 정해두고 보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 3.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책임 있는 행동과 방역에 대한 협조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혐오는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특정인과 집단에 대한 인신공격과 신상 노출은 트라우마로 2차 피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감염병이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불필요하게 같은 편에 상처를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4.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약간의 걱정, 불안, 우울, 외로움, 무료함이나 수면의 어려움, 신체적인 긴장 등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현재 발생한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위험하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불안감이 생기며, 이는 두근거림,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인 긴장 반응을 유발합니다. 전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타당한 반응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압도되고 있다면 특히 불면증이 지속해서 나타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염병 유행 상황이 이른 시간 안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 때문에 마법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은 축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함을 정상적 상황으로 받아





들이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6.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감염 위기 상황에서는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운동, 사회적 만남 등 자신이 좋아하던 기존의 사회적 교류와 업무 등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로움,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상 통화, 메일,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 7.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위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시기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활동을 늘려 보세요. 편지를 쓰거나 매일 일기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 8.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활동 제한으로 일상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 9.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두세요.

코로나는 치사율은 낮지만,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에게는 높은 위험성을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병원에 가기 힘든 시기에 만성질환,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겪는 분들은 치료가 중단되어 재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자가 격리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타적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심리적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 10. 우리 서로를 응원해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길 힘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지역으로 달려가는 수백 명의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악플 대신 감사의 글과 응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남**



##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래전 어느 날 금요권찰예배를 드리고 황급히 빠져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부르신다... 이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교구 목사님께서 “구역장을 맡아주었으면...” 하셨습니다.

구역 지도자반 수업을 막 끝냈던 터라, 이런 날이 오리라는 막연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목사님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는데...

구역장은 1, 2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되도록 천천히, 뒤로 미루고 싶었던 직분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무조건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목사님께 다음에 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려, 겨우 위기 아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목사님은 바뀌었고, 저는 다시 한번 구역장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렇게 맡게 된 구역은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광범위한 지역이었습니다.

첫 구역예배를 드리기 전날에는 예배드릴 권사님 댁을 사전 답사했으며, 당일에는 예배 30분 전에 도착해 차 안에서 한참을 기도한 후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 계단 한 계단 꼭꼭 눌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김명희 권사  
성남·분당교구 19구역장

우리 구역에는 혼자되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역예배 첫날, 한 권사님께서 “내가 구역장님 나이에 혼자됐네”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라면 아무것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두 자녀를 홀로 키우시며 가장이 되셔야만 했던 권사님의 삶이 깊게 공감되면서, 연세가 높으신 분이려 어렵게만 느껴졌던 제 마음의 담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첫 구역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나올 때, 지나치리만큼 두려워했던 것이 큰 기우였음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권사님들은 한참이나 어린 구역장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친절 가는 마음으로 구역예배 오겠다고 권사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또렷이 생각납니다. 저에게 친절 가는 시간은 설렘이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역예배를 드리러 가는 제 걸음이 그렇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역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구역예배 날로 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어느 날은 울동 공원에 돛자리를 펴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린 후 솜씨 좋은 권사님이 차려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두세 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교제하고 다음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아쉽게 헤어지기도 했었지요.

계절이 아름다운 봄철과 가을에는 어릴 적 소풍이라도 가는 날처럼 간식들을 챙겨서 유난히도 단풍이 고운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한 구역 식구로 교제했기에 격의 없이 친밀하시고 또 구역예배를 사모해 모이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지개는 색의 대비가 분명하나, 튀어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색을 선명히 드러낼 때,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구역의 식구들은 각기 다른 색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며, 각각 받은 은사대로 구역 안에서 섬기기를 자청하시는 귀한 믿음의 선배요 동역자들입니다.

저도 십 년쯤 더 지나면, 진하게 우려져 깊은 향을 내는 차처럼 우리 권사님들과 더 속 깊은 정이 쌓이겠지요…. 은혜로운 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이 말씀을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하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오랫동안 뵙지 못한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뵙고 싶습니다. **만남**

## 사랑을 전하는 병동 찬양 53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약 5:13)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 5:15a)

할렐루야!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병동합창봉사단’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병동합창봉사단은 호산나찬양대 안에 있는 로알리(ROYALL)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1962년 고등부 로알리 활동을 효시로, 1967년 한영상 대원을 주축으로 호산나 안에서 로알리 모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에서 평일에 찬양을 드렸고, 1967년부터 지금까지 백병원에서 주일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알리 임원단은 한 해 4명이 섬기지만, 병원 찬양은 시간이 되는 대원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긴 대원을 모두 합치면 약 1,000명 이상이 됩니다. 최근까지는 평균 10~12명 정도의 대원이 병동 찬양에 참여했습니다. 열심과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병마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입단해 현재까지 단원으로 섬기고 있으며, 호산나찬양대가 섬기는 4부 예배의 전 시간을 사용해 주일 오전 11시에 모인 10명 정도의 단원이 한 장의 찬송과 짧은 기도로 진행합니다. 찬송의 첫 장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환자분은

눈물을 머금고 계시기도 합니다. 로알리의 찬양을 지켜보는 다른 환우들도 아픔과 괴로움을 떨쳐버린 듯 맑고도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작은 달란트가 모여 환우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함께 찬양하며 고맙다고 해주시는 환자분들을 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찬양하고 싶어지고, 나 자신도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마지막 주일부터 환우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 귀중한 만남이 중단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병동합창봉사단 활동이 다시 시작되어 환우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로알리 병동합창단원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 지면을 통해 사랑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 영락교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영락의 시작은 뜨거운 열정이었다  
해방 후 격변기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선택된 주의 종 한경직 목사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한 영락의 외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칠곡과 같은 어둠 속  
전란으로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도  
영락은 이 땅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락의 발길이 머문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

전후 시대를 앞서간 영락은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를 위해  
군 선교와 학원 복음화의 문을 열어  
전도와 교육의 길을 넓혔고  
국내전도, 해외선교, 북한선교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구현해가고 있다  
세상을 향한 영락은  
4대 신앙지도원칙과 5대 본질에 따라  
세상이 어두울 때나 밝을 때에도

오직 주님의 뜻만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민음의 대를 이어가며 실현해 나갈 것이다.

시대의 등불이었던 영락은  
혼돈의 늪에 빠진 이 나라와  
기독교가 빛을 잃어가는 이때  
영락을 향한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다가  
김운성 목사를 통한 ‘기도대각성 운동’으로  
성령의 불을 지피 ‘한 친구 운동’을 전개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어둠에 잠겨가는 이 땅을 위해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영락이 될 것이다.

이광춘 집사\_성동·광진교구





##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박규성 목사 \_ 성동·광진교구, 목양부, 권사회



게리 채프먼 지음 / 박상은 옮김 / 생명의말씀사 / 240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온 인류는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강타한 감염병 재앙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신정론적인 의문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굳건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아무리 흥흥하고 기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성경 속 예화를 통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의 방법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맞추어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와 행동, 스킨십 등으로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주듯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지금도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온기를 전해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언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온 맘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언어를 드리시기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만남**

### 목차

- 1장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란?
- 2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1\_ 인정하는 말
- 3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2\_ 함께하는 시간
- 4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3\_ 선물
- 5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4\_ 봉사
- 6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5\_ 스킨십
- 7장 어떤 언어를 쓸 때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느끼는가?
- 8장 사랑의 언어, 그 어휘를 확장하라
- 9장 낯선 사랑의 언어를 시도하라
- 10장 어떤 언어로든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라

## 절실한 만남

기독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작품을 감상할 때, 은혜가 되고 가슴 속에 깊이 느껴지는 무언가 있다면 좋은 작품일 것이다.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더없이 좋으리라.

주님과의 만남을 현대 미술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절실함이 느껴지고 만남을 볼 수 있는 작품, 나의 작품을 살펴본다.

### ‘절실한 만남’

꿈틀거리는 형상들 속에서, 중심의 파란색에서 생명 탄생이 시작한다. 주변의 또 다른 핑크색에서도 생명 탄생이 이어진다. 그 생명 탄생을 ‘절실한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채롭게 서로 상관하며 만나는 형상들, 그러면서 퍼져나가는 형상들을 보게 된다. 생동감과 활력이 느껴지는 움직임, 마치 캔버스 밖까지 튀어 나갈 것 같은 느낌이다. 이는 서로 절실하게 만날 수밖에 없고 서로 상관하며 또 다른 만남의 연결이 계속되는 암시다.

이에 나의 속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17)



지난해, 힘들고 슬플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간절한 만남을 매일 원했다.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곧 주변 이웃들과의 만남이 되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설 수 있었다.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린다. 작년 겨울, 바로 이런 나의 마음이 빈 캔버스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내가 겪었던 것처럼,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만남이 중첩되며 퍼져나가서, 주님과의 만남이 주변의 만남이 되어 생명의 모습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 만남이 용솟음치는 생동감을 만들어 주님의 만남을 확장하는 것을 담고자 했다.

오늘도 난 여전히 주님과의 만남을 절실하게 원하고 또 원한다. **만남**

위영혜 집사 \_ 서초교구



“2020년 코로나 시대에 한 친구(179) 운동을 통해 내가 먼저 말씀과 친밀한 친구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믿음의 한 친구를 맺고,  
믿음이 없는 한 친구를 믿음의 친구로 변화시키는 즐거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 1. 배경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응급(119)해져 버린 이 시대에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119대작전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 목표 3가지와 주변을 섬기기 위한 행동목표 3가지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대비하기 위한 영적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를 통한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면서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눌 온라인 소그룹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또한 비대면 전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영적인 후속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한 친구 운동은 이 시대를 위한 즐거로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 2. 기간

7월 6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총 179일간의 대장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친구가 되어가기 위한 영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 3. 3가지 주요 행동목표

숫자 179를 ‘한 친구’로 음역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행동목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친구 운동’에서 ‘한’은 숫자 1(하나)을 의미하지만, 확대하면 ‘넓고 크다’는 뜻의 한자 ‘한(瀚)’<sup>1</sup>을 의미합니다.

- ① 말씀과 내가 한 친구 맺기 :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말씀과 친

밀한 한 친구로 맺어지고, 179일간 성경 1독을 목표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합니다.

- ② 말씀을 나눌 한 친구 맺기 :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나만 묵상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구역 식구들, 또는 믿음의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소그룹 카톡방에 모여서 그날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영성일기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세 겹줄로 하나 되는 든든한 믿음의 한 친구를 맺고자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성도들 간에 온라인을 통한 영적인 소그룹 소통의 장 및 신앙생활 격려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 ③ 말씀을 전할 한 친구 맺기 : 카톡으로 정치적 이슈나 사건·사고, 재정 및 건강 관련 글, 좋은 글, 유머, 가짜 뉴스, 유튜브 인기 영상 등 세상의 이슈를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한 친구 운동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답게 매일 주어지는 179개의 캘리그라피 말씀카드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보내줌으로써 그들도 말씀과 한 친구가 되도록 비대면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와 함께 김운성 목사님의 179개의 말씀 영상을 함께 보내주면 불신자들에게 귀한 전도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가급적 날마다 하루에 한(1) 친구(79)에게 말씀카드 이미지를 보내면서 날마다 전도하면 최대 179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sup>1</sup>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크고도 넓은 진정한 한(瀚) 친구가 되고, 믿음의 친구들과도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한(瀚) 친구가 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말씀과 한(瀚) 친구가 되도록 합니다. 결국, 최종 목표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크고 넓은 한(瀚)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니다. 또한 구역이나 교구 내에 장기결석자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최근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카드와 영상을 보내줌으로써 그들도 주안에서 영적인 한 친구로 맺어지도록 합니다.

#### 4. 콘텐츠 활용 팁

##### ① 청현재이 말씀카드 공유하기

캘리그래피 전문회사인 '청현재이'와 저작권협의를 마친 179개의 이미지를 매일 하나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일 아침 각 구역장을 통해서 말씀카드 이미지를 성도님들에게 제공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접속 및 공유하여 많은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②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말씀영상 공유하기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말씀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에게 전송된 말씀

카드 이미지와 말씀 영상을 삼삼오오 믿음의 친구들끼리 카톡방 등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거나,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불신자 친구에게 전송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 ③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만나'를 통해 교구 목사 와 만나기

각 교구 목사의 설교 영상이 교구별로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제공됩니다. 올해 교구 교역자가 전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교구 목사의 설교 영상을 접하지 못한 교구 식구들에게 교구 목사의 설교 영상을 제공하여 교구 소속감을 고취하게 됩니다.

##### ④ 18개 교구홈페이지 -'영락교구 e-마을'

###### 활용하기

18개 각 교구 홈페이지에 교구 목사의 영상설교는 물론 교구별 구역소개와 지역소개 등을 통해 해당 교구에 대한 알림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공지 게시판과 사진 게시판을 통해 교구 내 장례나 결혼식에 대한 애경사 정보를 올리고, 교구 친교의 날이나 지회별 모임 때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하여 일종의 인터넷 가상공간 안에서의 비대면 교구 e-마을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추후 콘텐츠나 화면구성 등 디자인 갱신을 통해 영락교회 Online Church로 발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 ⑤ 한 친구 운동 가이드북 활용하기

무료로 제작되는 가이드북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날마다 말씀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가이드북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 교회소식

## news letter

## 6·25 70주년 구국기도대성회 유튜브로 열방에 생중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TMTC) 공동주최로 한국 교회 구국기도대성회가 지난 6월 25일(목)~27일(토) 교회 본당과 5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 교회가 함께 금식 회개하며 올해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제2의 6·25를 막고 복음통일의 문을 여는 원년으로 삼자며 3일간 금식하며 간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라텍스 장갑 의무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참석자도 1,200명으로 제한했다. 휴식시간에는 기도자들을 전부 퇴장시키고 예배당을 소독하며 철저한 방

역활동을 했다.

대성회는 첫날 '회개와 하나님나라', 둘째 날 '교회 연합과 복음통일', 셋째 날 '영적부흥과 세계선교'란 주제로 말씀 특강 기도회가 이어졌다.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김운성 위임목사는 "70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 등 신앙의 선배들이 민족과 나라, 교회를 지켜달라고 금식기도를 했다"며 "우리도 그들처럼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고 권면했다. 행사를 준비한 임현수 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이사장(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은 "코로나19 위기 속 개인과 민족,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결단과 변화가 있도록 간구했다"며 "유튜브를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지의 기도자 수천 명이 실시간으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기도회는 오전 6시 30분 새벽기도회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됐는데 셋째 날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 인사말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섬기는 가정과 교회로 돌아가 북한선교를 거룩한 사명으로 이어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임현수 목사는 "6·25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인터넷을 통해 수만 명의 기도자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북한선교의 상징인 영락교회에서 구국기도대성회를 열게 돼 의미가 각별했다"고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 제12회 장로교의 날 기념예배 “희망의 빛을 비추자”

지난 7월 2일 목요일 교회 본당에서 ‘제12회 장로교의 날’ 기념예배와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주최한 이날 기념예배에서는 분열과 세속화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희망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자고 권면했다. 기념예배는 주제인 ‘빛이 있으라(창1:3)’는 제하의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직전총회장) 설교, 서울장신대 밀알증창단의 찬양, 특별기도,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서 김운



성 위임목사는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성경을 진리의 터로 삼자. 사랑으로 북한동포와 소외된 자, 탈북자유인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헌신하여 사회와 나라를 위해 마지막 보루가 되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성령으로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장총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장소를 허락한 영락교회에 감사하며 김운성 목사께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로교단 대표 참석인원을 250여 명으로 제한했고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드러졌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걸음을 멈춘 이들에게’



‘2020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6월 29일(월)부터 7월 4일(토)까지 ‘걸음을 멈춘 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새벽 6시(토요일은 6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에게(신명기31:1~8)’,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에게(여호수아 7:2~13)’, ‘철병거에 막힌 요셉 자손에게(여호수아 17:14~18)’, ‘로뎀나무 아래 누운 엘리야에게(열왕기상 19:1~9)’, ‘성전공사를 중단한 유다 백성에게(학개

1:12~15)’, ‘대도시에 홀로 선 바울에게(사도행전 18:5~11)’라는 제목으로 6일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 바울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중단 없이 가자”고 권면했다. 특별새벽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로 생중계돼 가정에서도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영적 결단의 시간이 됐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故백선엽 장군 위로 예배

6·25전쟁 최후 방어전선인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25일 간 결사 항전으로 승리를 이끌어 내고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을 마련,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백선엽 장군이 7월 1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군인이자 영락교회 집사로 신앙인의 길을 걸어 온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부인과 2남 2녀)을 위한 위로 예배가 7월 14일 오후 2시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최승도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다윗 같은 삶’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예비역 기독교교회(OCU) 영락 회장인 강신만 장로의 기도와 이철신 원로 목사의 축도가 이어지며 고인을 추모했다.

취재 김성현 장로

## (사)솔리데오 제3대 이사장으로 김순미 장로 취임



사단법인 솔리데오는 지난 6월 19일(금) 우리 교회 드림홀에서 법인 산하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김순미 장로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말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제하의 설교로 격려하고 축도했다.

솔리데오는 2014년 6월 창립하여 ‘하늘 영광, 땅에 평화’라는 목표 아래 찬양 선교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교파 90여 개 교회 130여 명 장로들로 구성된 장로합창단과 여성합창단, 남성찬양단, 콰이어차임 등 4개 단체의 연주횟수는 국내외 320여 회에 달하고 있다. 김순미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찬양 선교활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더욱 귀한 사역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자”고 말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 영락사회복지재단,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수탁 운영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지난 5월 1일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을 시작했다. 재단에서 처음 운영하는 복지관 사업이며, 영락경로원 원장으로 시무하던 권기웅 안수집사가 관장을 맡았다.

2009년 7월 문을 연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은 효창공원 후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가족문화, 직업, 기능향상, 기획사례 지원 등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자립과 여가를 돕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1주년을 맞은 영락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해 왔지만 지역사회 복지관을 수탁 받은 것은 처음으로 지난 7월 7일(화) 김운성 위임 목사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김 목사는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회통합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자”고 당부했다. 복지관 운영을 통해 주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 대화섬유, 영락복지재단에 티셔츠 900장 후원



6월 29일(월) 대화섬유 박호전 은퇴안수집사가 영락사회복지재단에 900여 장의 티셔츠를 후원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후원이 있었다.

기부된 의류는 12개 산하시설에 골고루 나누었으며 조만간 입소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 김신경 은퇴장로 별세...본당에서 교회장으로 엄수



김신경 은퇴장로가 지난 6월 29일(월)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1931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한 고인은 평양성화신학교에서 수학하다 19세 때 6·25전쟁을 만나 월남, 서울중앙신학교를 졸업했다. 1993년 본 교회 제 26회 시무장로로 장립되어 2001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며 5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분과위원장, 재정부 부장,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 베들레헴·갈보리 찬양대장, 교회중앙기발전위원회 위원장, 본당 보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장례예식은 김운성 위임목사의 집례로 7월 2일(목)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교회장으로 드려졌다. 김 목사는 말씀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만이 진정한 안식”이라며 “더 나은 본향을 확고하게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유가족, 교회,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다. 하관예식은 장지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김충섭 목사 집례로 이뤄졌다. 유족은 부인 오성애 권사, 장남 김태영 안수집사와 3녀를 두었다.

## 변일현 은퇴장로 교회장으로 영락공원묘원 안장



변일현 은퇴장로가 지난 7월 10일(금)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1928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육군사관학교 10기 출신으로 6·25전쟁과 월남전 주월한국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참여한 공적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육군 25사단장을 거쳐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92년 12월 제24회 시무장로로 장립되어 1998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며 구역장 봉사(19년), 제직회 서기, 베다니찬양대 대장, 청년부장, 상담부장, 50주년기념사업회(시설분과)서기, 당회 기획위원회 서기 등을 역임했고, 수년간 예비역 기독교교회(OCU)회장을 맡아 군선교 사역에도 앞장섰다. 장례예식은 김운성 위임목사의 집례로 7월 13일(월)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교회장으로 드려졌다. 장지는 현충원 대신에 유족들의 뜻에 따라 영락교회공원묘원으로 정해 김충섭 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유족은 부인 신정자 권사와 1남 3녀를 두었다.

8월  
목회력

5일(수)~7일(금)

산상기도회 2차

9일(주일)

광복주일, 제직회

23일(주일)

심방준비회, 사회봉사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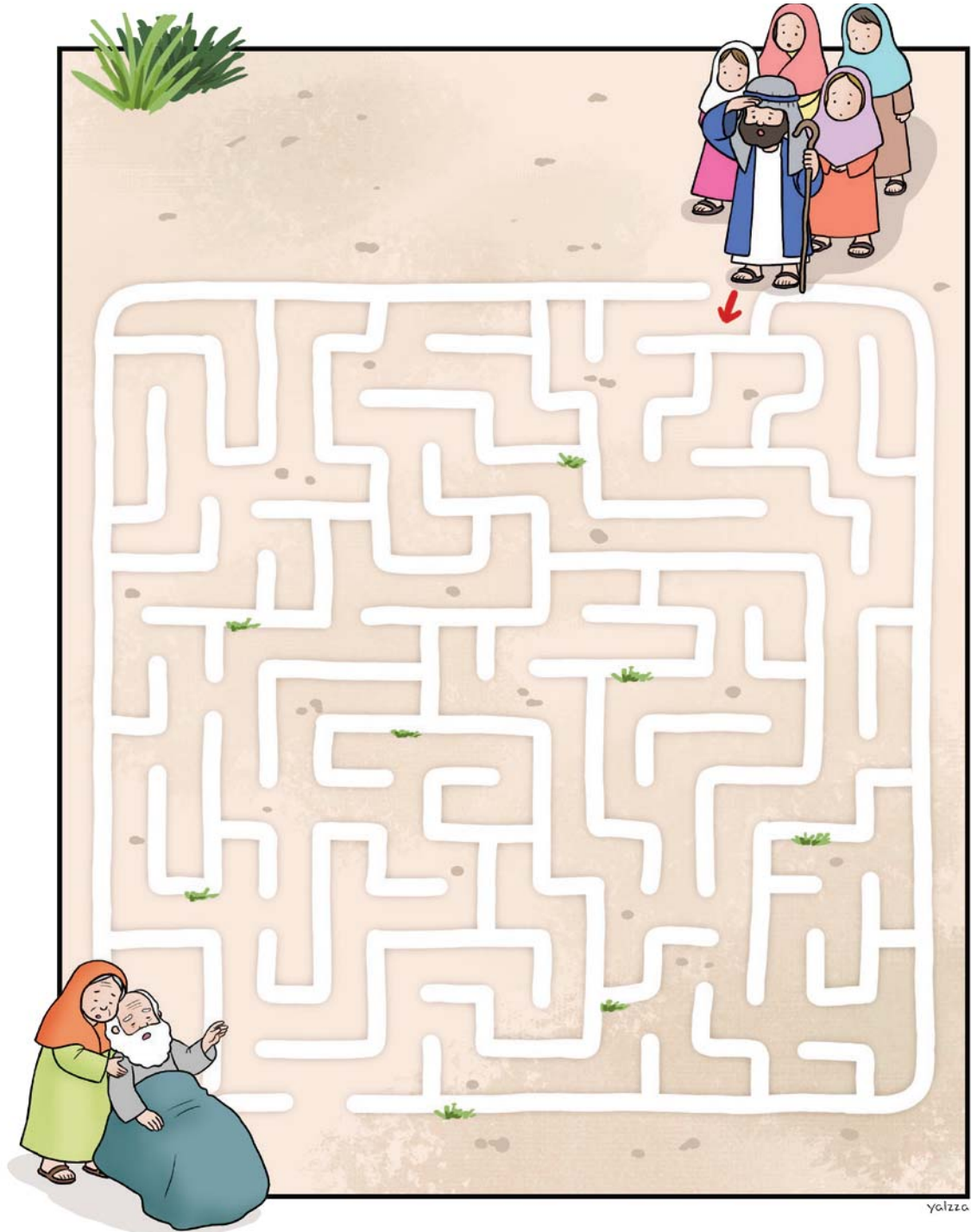
※8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 미로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기랴트아르바로 가려고 합니다. 위독한 아버지에게 빨리 가야하는데 함께 지름길을 찾아주세요~



## 편집장 레터

하루하루 누적된 피로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시로 잠이 옵니다.

피곤할 때 최고의 보약은 바로 잠이라 했던가요? 잠은 고달픈 육체를 풀어 주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지요. 이렇듯 소중한 잠이지만, 종종 무익할 때도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볼 수 있듯이, 토끼는 빠르고 날쌔기는 하지만 잠을 자게 되고 그 시간 꾸준히 기어간 거북이에게 승리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한참 기도하신 후 세 제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제자들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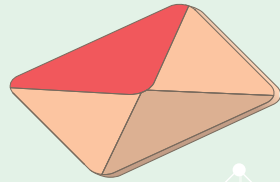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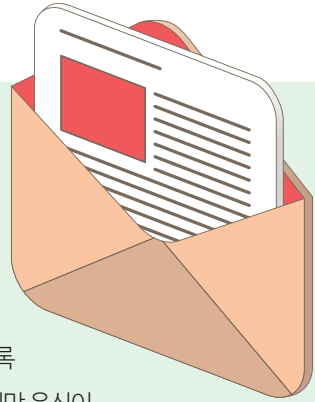


에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잠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 말할 하지만,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靈的)으로나 물질적으로 운택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언 20:13)고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8월 『만남』은 영혼의 잠을 깨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어서 깨어 일어나 채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장 이동훈



2020년 8월호 통권 559호

발행 2020. 8.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혁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 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숨은그림찾기



# 제60회 산상기도회

올해 산상기도회는 영락교회 본당과 베엘기도실에서 열립니다.

## 1차 2020년 7월 29일(수) ~ 7월 31일(금)



강사: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원로)

집행위원장: 윤재기 장로

참여교구: 2(강동·송파) 4(중구·용산) 5(관악·동작·금천) 7(서대문·은평)  
9(마포·영등포) 12(강북·도봉) 13(서초) 16(고양·파주)  
18(용인·화성)

## 2차 2020년 8월 5일(수) ~ 8월 7일(금)



강사: 유진소 목사(호산나교회)

집행위원장: 김명옥 장로

참여교구: 1(강남) 3(성동·광진) 6(강서·구로·양천) 8(동대문·중랑)  
10(종로·성북) 11(노원) 14(인천) 15(성남·분당) 17(안양·수원)

### ■ 예배시간

내용	시간	해당일자	장소
새벽예배*	새벽 6:30	1차: 7월 30일(목), 31일(금) 2차: 8월 6일(목), 7일(금)	본당, 베엘기도실
저녁예배*	저녁 7:00	1차: 7월 29일(수), 30일(목), 31일(금) 2차: 8월 5일(수), 6일(목), 7일(금)	본당, 베엘기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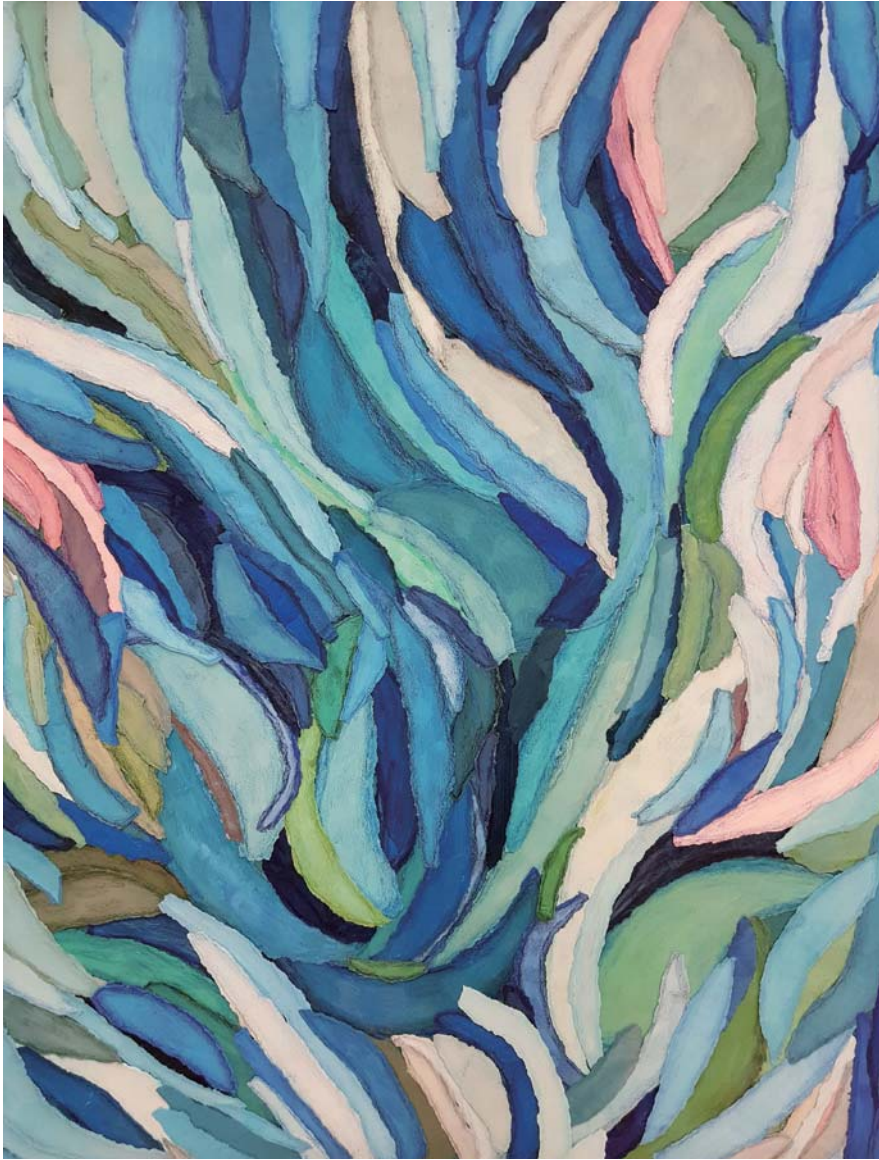
\* 올해 산상기도회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오전예배는 없습니다. 단, 목요일 저녁예배는 본당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영락화랑

## 절실한 만남



위영혜, Mixed media on Canvas, 72.7×60.6cm, 2019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17)